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새롭게 출발!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 1월 25일 축산법 개정시행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 기관 명칭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축산물등급판정사에 대한 호칭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범위도 축산물등급판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단위 ‘지역본부’의 명칭도 ‘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본원의 ‘등급사업본부’를 **‘평가사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989년 설립 초기에는 소·돼지의 등급판정 업무만 수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공정거래 가격지표 제공에 결정적인 기여해 왔으며, 등급판정 결과를 기초로 한 고급육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쇠고기 이력제 사업, 우수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 결과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축산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내 축산물 유통 분야의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법 개정을 통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다시 출발하여 사명을 다하고자 전 직원이 다짐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분야의 유일한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경제에 맞게 소·돼지 등급판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판정 품목도 확대하여 오리고기 및 말고기의 등급판정 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에게도 국내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알 권리를 제공하여 고객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